부산연극사

-소극장사 1963~2009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부산연극사

-소극장사 1963~2009

2009년 11월 25일 인쇄
2009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인 김동석
주간 고인범 심상교
발행처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01-060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31
전화 : 051)645-3759
펴낸곳 도서출판 해성
600-01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 19번지 성동빌딩 3층
출판등록 1989년 4월 6일 제카 1-117호
전화 : 051)441-0485 전송 : 051)465-0485
http://book0485.com / e-mail:book0485@chollian.net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2009 printed in Busan Korea

ISBN 978-89-7921-130-6

※ 저자와의 협의하에 인지는 생략합니다.

※ 이 책은 2009년도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

※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은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우와 관객이 함께 공연을 완성해 나가는 곳

김 동 석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장

지난 3년 동안 본 협회에서는 부산의 연극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연극사 자료집』(2006.9), 『부산연극제 25년사』(2007.12), 『부산연극사-한국연극 100년 부산연극 100년』(2008.11)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연극과 관객이 만나는 가장 대중적이자 기본적인 장소인 소극장을 테마로 정하여 부산의 연극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연극과 소극장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실과 바늘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둘의 관계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우선하는 것이 아닌,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연극사를 정리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소극장의 역사이고 이에 부응하고자 본 협회에서는 『부산연극사-소극장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소극장의 사전적 정의는 "규모가 작은 극장. 대극장의 상업성을 지양하고 예술성을 추구하며 관객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극장"입니다. 정의에서 보듯이 소극장이란 단순히 규모가 작은 극장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출가는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배우와 관객은 서로의 호흡을 느끼는 동시에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배우와 관객이 함께 한 편의 공연을 완성해 나가는 곳이 소극장인 것입니다.

그동안 부산에는 많은 소극장이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흔적을 뒤쫓기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소극장의 속성상 영세한 규모가 많아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원로 연극인들의 도움과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부산연극사-소극장사』를 발간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산의 많은 소극장에서는 훌륭한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가 부산의 소극장을 널리 알리고 나아가 부산연극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김문홍 선생님, 허은 선생님, 이성규 선생님, 전상배 대표, 강성우 연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ONTENTS

발간사

배우와 관객이 함께 공연을 완성해 나가는 곳
_김동석 *004*

제1부

부산지역 소극장 연극사 _김문홍

Ⅰ. 부산 지역 소극장 연극 운동의 현주소 *010*

Ⅱ. 부산지역 소극장 연극사 *030*

Ⅲ. 부산지역 소극장 연극 지도 *224*

제2부

부산 소극장의 흥망성쇠

Ⅰ. 소극장 운동의 의의와 역할 _허 은 *228*

Ⅱ. 부산 소극장 연극의 전망 _이성규 *246*

Ⅲ. 문화 공간으로서의 소극장 _전상배 *270*

제3부

부산 소극장 시설 및 장비 현황 _강성우 *286*

1부

부산지역 소극장 연극사

김문홍

부산지역 소극장 연극사

Ⅰ. 부산지역 소극장 연극 운동의 현주소

1. 여는 글

소극장 운동(Little Theatre Movement)이란 기존의 물리적인 '소극장'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의 '운동' 개념으로 파악되고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국의 소극장 운동은 몇몇 소극장을 제외하고는 물리적인 개념으로서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극장 연극은 그저 100석 이내의 좌석 수를 가진 작은 규모의 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이라는 기존의 통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소극장 연극 운동'이란 그러한 물리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연극의 본질과 기능에 입각하여 일관된 연극적 이념을 가지고 연극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테리 호즈슨의 『베즈포드 연극 용어 사전』(The Batsford Dictionary of Drama)은 소극장 운동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영국에서 양대 세계 대전 사이에 시작되었던 운동으로, 그 결과 다수의 아마추어 연극 집단이 결성되고, 1946년에는 소극장 길드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집단들은 저마다 극장을 가지고, 상당한 빈도로 상연을 하고 있다. 일링 〈런던시 자치구의 하나〉의 퀴스터즈 극단처럼, 몇몇 소극단에는 극단원을 위한 훈련 계획이 있으며, 그 수준은 매우 높다.

마찬가지 운동이 미국에서는 1900년대에 시작되었다. 미국의 소극장은 현재 '공동체 극장'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인용한 '소극장 운동'에 대한 기술에서 '저마다 극장을 가지고', '상당한 빈도로 상연을 하고', '극단원을 위한 훈련 계획이 있으며', '그 수준은 매우 높다.'라는 중요한 개념들을 추출할 수가 있다. 즉, '어떤 극단이 자신들의 극장을 소유한 채 끊임없이 공연을 하고, 극단 단원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 그리고 그들이 하는 공연은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나야한다'는 소극장 운동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제 극단이 부설되어 그 극단을 중심으로 한 연극적 이념과 목표가 동일한 구성원들이 모여 자체 공연을 통하여 매번 새로운 연극적 형식 실험을 통하여 연극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소극장 연극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뚜렷한 연극 이념이나 방향성에 적합한 레퍼토리로 꾸준하게 자체 공연도 하지 않으며 그저 초청 공연이나 다른 극단들에 대관을 하기도 하면서 소극장을 운영해 나가는 요즈음의 소극장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극장 연극 운동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옳을 것이다.